

학생에 맞은 교사 7명…광주, 교권침해 3년새 25배 ↑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탓? 작년만 무려 487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3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7명이 학생들에 폭행당했고, 심지어 5명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487건에 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0년 19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209건, 지난해 487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연 뒤 교육청에 보고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한 건

수까지 합하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지난해 487건 중 폭언·욕설(213건·43.7%)과 수업진행 방해(175건·35.9%)가 대부분 분위 차지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한 사건도 각각 2건, 3건 발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은 교육부에서 통계요구를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단순 욕설의 경우 2010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2011년부터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3학기 연속 교권침해 사례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학기

폭언·욕설·수업방해에

폭행·성희롱까지 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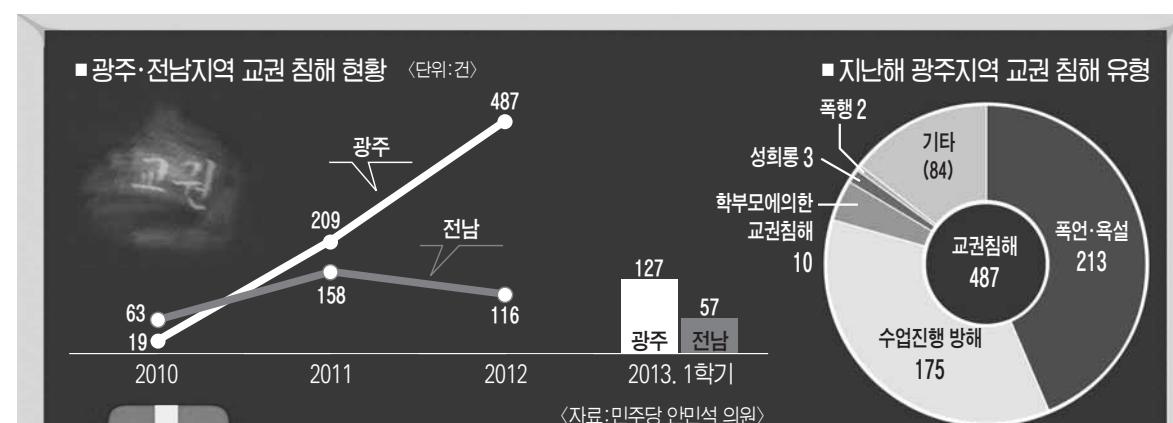
교육청 "통계방법 달라 많아져"

전남은 해마다 감소세

283건에서 2학기 204건, 올해 1학기 127건으로 각각 27.9%, 37.7% 감소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은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대화의 상대"라며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연수단을 통해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 요령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예절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교권침해 사례가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158건에 달했다.



했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116건, 올해 1학기 57건으로 감소세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116건 중 폭언·욕설이 51건, 수업진행 방해 32건, 폭행 4건, 교사 성희롱 1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1학기) 사·도별 교권침해 사례는 서울이 49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470건, 부산 1733건, 대구 1441건, 대전 1400건, 경남 891건 등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보장하는 일 역시 시급한 사안"이라며 "학교에서의 잦은 교권침해는 교원들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결국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서둘러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어느 20대 청춘의 잔혹死

광주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 인근 A빌라에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다. 잠다 못한 원룸 입주민들은 관리실에 알렸고 원룸 주인 김모(50)씨는 냄새의 행방을 찾았다.

악취는 4층으로 갈수록 심해졌고 401호가 의심됐다. 김씨는 보조 키로 문을 열어봤지만 추가 자물쇠가 달린 401호는 쉽게 열리지 않았고 결국 119에 신고했다.

잠시후 도착한 119에 의해 문이 열리고 방안을 살펴본 김씨와 119 대원들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방에 세들어 살던 강모(28)씨의 시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부모도 친구도 직업도 없어

우울증에 목 맨 지 수십일...

세상이 그를 발견했을 땐

형체 알아볼 수 없고 악취만

정도로 훈련돼 있었고 현관문에는 강씨가 목을 매단 흔적이 있었다.

강씨는 21살이던 지난 2006년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 가족으로는 누나가 한명 있었지만 자주 연락을 못했고 결혼한 강씨의 누이는 형편이 어려워 동생에게 신경을 써야만 했다. 강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몇 번

취업을 하긴 했지만 적응을 못해 쉽게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집에서 먹는 식사는 대부분 라면이었다. 수중에 돈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씨는 12일 오후 4시50분께 숨진지 수십일 만에 발견됐다. 찾아오는 친구와 가족이 없었던 강씨는 시신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야 발견될 수 있었다. 경찰은 강씨가 혼자 살며 은둔 생활을 했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초등 사교육비 1인당 월 25만2000원

서울 이어 두번째로 높아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5만8000원이었다.

이는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 22만4000원을 밑돌았고, 36만1000원인 서울과는 무려 13만7000원의 격차가 났다.

반면 광주지역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2000원으로 서울(26만1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이를 사교육비는 1년만

에 월 2만3000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가장 비쌌다. 고등학생 사교육비보다 크게 웃도는 데다 해마다 오름세다. 광주지역은 2009년 22만8000원이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0년 23만6000원, 2011년 25만2000원, 지난해 27만3000원으로 3년새 4만5000원 급등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제동장치 풀린 택배차에 치여 순천서 3세 아이 숨져

하는 일 역시 시급한 사안"이라며

"학교에서의 잦은 교권침해는 교원들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결국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서둘러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주석선물 돌린 군의원 고발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에 선거구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만4000원 상당의 선불카드 160개를 주민 16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제공하는 등 총 240여 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 15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종기자 gjiju@

색소폰 강사, 단골인줄 알았는데 도둑

○…단골 악기점에

서 3년간 1억원 가량의 색소폰 응품을 훔쳐온 60대 색소폰 연주자가 청창행.

○…1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노모(67)씨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광주시 서구 화정동 A악기점에서 수십만원짜리 고가의 마우스파스 등

149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색소폰 응품을 훔친 혐의.

○…색소폰 강사인 노씨는 A악기점이 규모가 큰데다 소모품이 많아 재고 파악도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왔는데, 노씨가 다녀간 뒤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의심한 주인이 한달 전 설치한 CCTV에 의해 범행이 들통.

/부평경찰기자 halo@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N)
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Gli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여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대한고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미® 단열복합시트방수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1 2 3 4

사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사공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미시트사공 트라이슈미 탈코팅 사공 시공 후

2중단열 방수 2중단열 방수 2중단열 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걸로방지 시공 천정 걸로방지 시공 천정 걸로방지 시공 천정 걸로방지 시공

내구성 탁월 내구성 탁월 내구성 탁월 내구성 탁월

냉 · 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주]아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아파엘지.kr

(062) 511-0444 (062) 511-0444 010-6603-0405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